**죽음에 관하여 : 5차시**

**지난시간 리마인드**

* 죽음이란 무엇인가?
* 자립청년의 사회적인 고립감, 홀로서기 ->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자살문제 언급
* 죽음의 정의
* **죽음에 대한 인식**

**영유아기**

*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죽음은 거의 의미가 없음
* 유아기에는 애착관계가 형성된 사람의 상실에 대한 일시적 슬픔은 느끼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함
* 평소와 같이 정상적 환경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함

**아동기**

* 죽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기 힘들고 죽음을 일시적인 상태로 인식
* 인지발달로 점차 죽음의 필연성, 보편성, 불가역성을 깨달음
* 죽음에 대한 충격과 상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 및 퇴행 행동

**청소년기**

* 죽음에 대해 성숙하게 이해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낭만적, 타인 이야기)
*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므로 죽음을 수용하고 대처하기 힘들어 함

**성인기**

* 초기에는 노화와 죽음이 자신과 동떨어져 있다고 인식
* 나이가 들고 세대 내

**노년기**

* 직접적으로 죽음에 직면하고 점차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한 것은 아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

*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의식 : 공포, 불안, 슬픔
* **“죽음아, 네가 두렵다!”**
* 인간에게 죽음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내포되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됨  
  죽어가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감에 휩싸이게 됨  
  인생을 즐겁고 유쾌한 경험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이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두려움  
  죽음은 자기보존의 본능이며, 지금 이 곳에서의 욕망의 의지를 꺾어 버리는 마지막 적임

**죽음이 왜 두려울까?**

* 인간은 왜 죽음을 부정하고 두려워할까?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큰 듯하다.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자체가 금기 시 되기도 한다.  
  현세의 고통에서의 구원되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보다는 모든 것이 끝이요, 상실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설사 지도를 펼쳐 놓고

**죽음의 두려움과 초월**

*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통,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죽음이 나쁘지 않다면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특히,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나쁘다는 점은 동시에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임을 주장 함.
* 스토아학파에서는 죽음이 나쁘지 않다고 함.
* 사마천은 [사기열전]에서 “죽음을 모를 터이니 굳이 죽음이 뭐다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어차피 한번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 일본 의사 히노하라 시계아키는 106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죽음이 두렵다”고 고백. 그가 쓴 [살아가는 당신에게] (2016)에서 “죽음이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에 “듣는 것 만으로도 다리가 떨릴 정도로 무섭다” 고 했음.

그는 죽음과 생명은 나눌 수 없는 것이며 도망갈 수도 없다. 단지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함.

<인간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문명과 문화를 발전 시켜왔다.>

* 영국의 고전사회학자이며, 무신론자인 스펜서는 “인간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함.  
  즉, 인간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에 문명을 발전시킨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은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이 죽어갈 것을 상상하며 무서워한다는 것임.  
  <사람들은 죽음을 부인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역설적으로 자기 존재 자체의 영속성을 추구하며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것이다.>
* 이와 같은 견해를 지적한 사람 : 미국의 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죽음의 부정]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의 불가피성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며, 죽음의 과정에서 스며드는 불안과 공포는 우리 삶의 적응 긴으을 저해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것을 줄이려는 행동을 함.  
  <언젠가 닥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에 대한 애착과 도전감도 더 생긴다.>

**공포관리이론(Sheldon Solomon / Terror Management Theory, TMT)**

* 첫째, 심리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의식을 제거하려고 한다.
* 둘째, 죽음에 대한 부정은 곧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자존감을 높여가는데 유효하다.
* 셋째, 사람들은 유한성을 느끼기에 더 건강에 매달리게 된다.